인미공

2025.4.29.–6.1.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89

인사미술공간 Insa Art Space



(This)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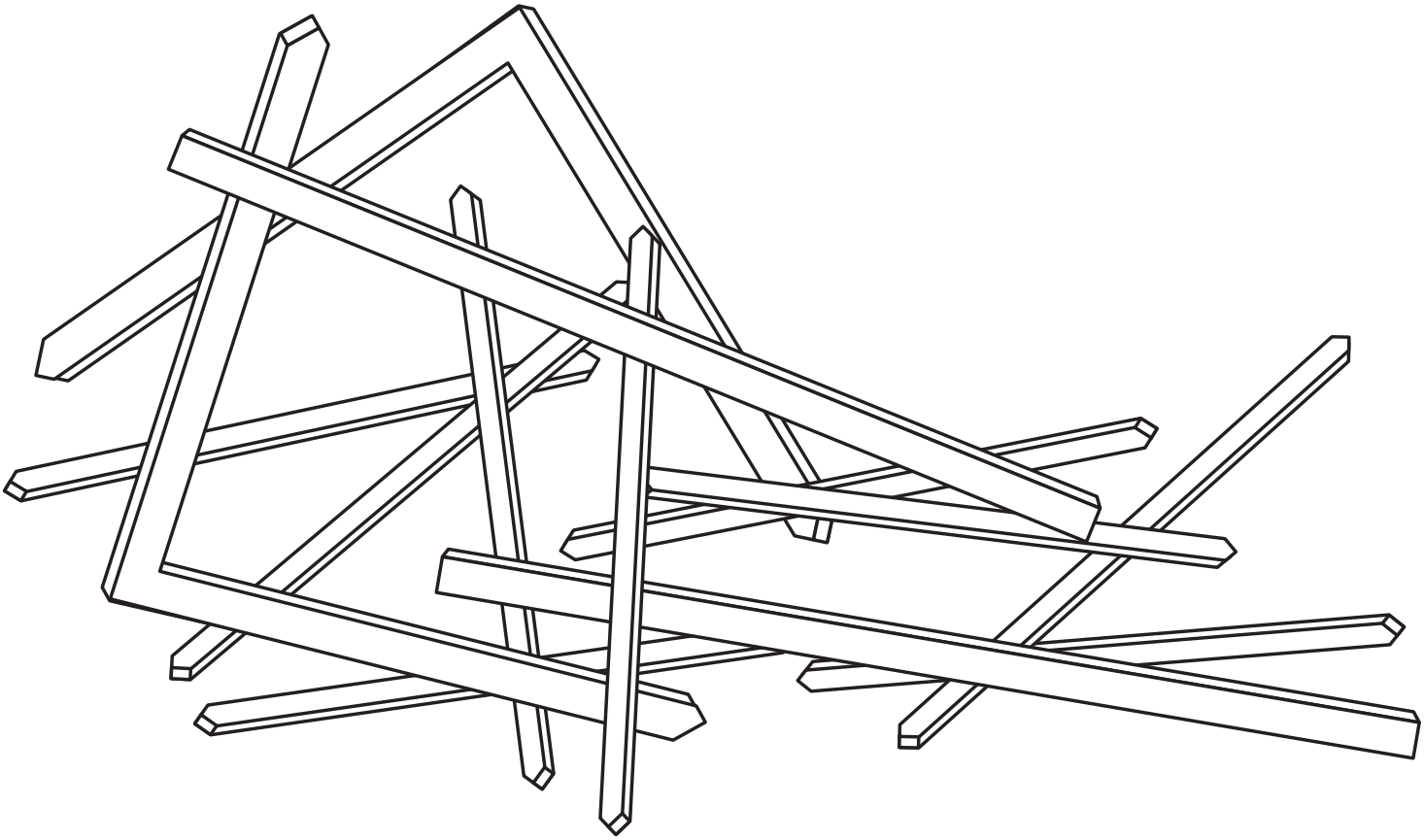
Space

인미공 종료 전시

INSA ART SPACE CLOSING EXHIBITION

WWW.ARKO.OR.KR/INSA

《그런 공간》



지금 앞에 놓인 이미지와 텍스트들은 모두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이 남긴 시간의 파편들에서 시작되었다. 문을 닫는 공간, 그래서 과거로 기억되길 선택한 공간,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된 공간. 그곳에 남겨진 언어와 목소리를 정리하고 설명하는 일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종료를 비관하며 읊조리는 감상적 독백이 아니다. 다만 수많은 녹취록과 메일, 문서, 도록 등의 기록을 앞에 두었음에도 25년간 존재했던 인미공이라는 공간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그 서사를 더듬어야 하는지, 그중 어떤 지점을 짚어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가깝다. 무엇 그리고 어디를. 《그런 공간》은 그 추상적인 질문과 과제를 앞에 두고 인미공을 바라본다.

인미공의 서사와 그 성격은 실상 자료의 순차적 열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 공간의 명백한 태생 이유인 '지원'으로 이를 간추릴 수도 있겠지만 인미공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던 건 단지 그뿐만은 아니었다. 이곳은 전시를 할/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교류나 협업의 장이었고, 연구와 토론, 비평과 비판이 고루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인미공은 경험한 이들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해지는 '그런 공간'이었다. 다른 한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안적인 성격의 비영리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을 고뇌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그려야 했다. 그러나 실상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았다/못했다. 때문에 25년의 인미공 그리고 인미공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꽤 차이가 있었다. 이에 《그런 공간》은 인미공을 발화할 때 상기되는 각 단면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아울러 인미공의 25년과 미술계의 타임라인을 포개어 공간의 역사와 그 종료의 쟁점을 오늘, 나아가 미래로 전달할 방법을 살핀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미술분야 민간지원 급감과 창작 여건 둔화에 처한 미술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시각예술 작가들을 위한 지원 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렇게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개관한 인미공은 지원 공모에 선정된 작가들의 전시를 이어갔다. 장기적인 지원의 역할을 넘어서 자체 기획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공간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던 중 인미공은 관훈동의 학고재 건물(현 갤러리이즈) 3, 4층으로 공간을 이전한다. 이곳에서도 공모 전시는 계속 진행되었으나 2005년에는 이외 다양한 활동으로 눈을 돌린다. 먼저 피진 콜렉티브(임민욱, 프레데릭 미숑), 이미경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작가의 관점과 해석이 개입하는 아카이브를 만들어 향후 프로젝트 및 전시와 역동적으로 연계하는 인미공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또한 신진작가 지원, 국제교류 등의 프로그램들도 기획한다. 그리고 2006년 원서동에 위치한 한국미술박물관(구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기획전시실을 리모델링하고 이곳으로 이전하여 마침내 인미공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지하 1층을 포함해 총 4층으로 구성된 이 독특한 공간에서 인미공은 작품 발표 기회 제공 및 전시 기획 위주의 기능 수행을 탈피하고 "전시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공간"*을 표방한다. 더불어 국제교류와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미공에 그 역할이 부여되면서 인미공은 서구는 물론 베트남, 중동 등 제3세계 국가들과 로컬리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출판,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연속시킨다. 즉 2008년까지는 공간 태생의 이유인 작가 지원을 넘어 전시와 아카이브, 세미나, 워크숍, 출판 등 전시 안팎의 다양한 미술 실천이 서로 밀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며 담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시기였다. 그렇게 인미공은 미술공간, 공공기관, 조직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체성과 틀에 부딪히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갔다.

그러나 2009년 인미공의 큰 축을 이루던 요소들이 모두 아르코미술관으로 흡수되면서 인미공은 작가 및 기획자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시금 '확정'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미공은 다양한 창작자들로 북적거리는, 그런 공간이었다. 2009년 차세대예술가육성지원(AYAF), 2016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 등 그 이름과 공모 방식이 바뀌어도 여전히 신진예술인 지원을 목표로 한 사업들과 인미공이라는 '공간'은 엮여 늘 새로운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후 2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인미공 공공이공》(2020년)과 함께 〈인미공 창작소〉(2020–2022년)가, 2021년에는 〈월간 인미공〉(2021–2022년), 전문인 교육 프로그램 〈아트토크〉(2021–2023년)도 운영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인미공의 수많은 전시와 프로그램 리스트에도 불구하고, 인미공이 과연 '어떤 공간'인지를 묻는 질문의 빈도는 가속되었다. 인미공을 둘러싼 미술계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했고 새로움을 탐하는 과정도 급박해졌다. 그러나 인미공은 여전히 '지원', '청년', '신진' 등의 단어를 붙들며 젊지도 늙지도 않는 공간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불투명한 존속 여부, 밖의 기대와 안의 고뇌의 시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인미공을 이뤘던 조각들은 늘 과거의 것이었기에 전처럼 미술 '공간'을 넘어서려면 다시 많은 것이 필요했다. 꼭 예산이나 인력 부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과거의 실험과 실천을 반복 및 참조하면서 어떤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인미공에 대한 안팎의 믿음이 여전히 남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방향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했던 인미공은 연속되면서도 완결되지 못한 논의들을 지나 이제 과거의 한 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제 서두에 언급한 질문을 다시 소환한다. 맺는말의 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인미공의 무엇 그리고 어디를 설명하거나 볼 것인가. 이에《그런 공간》은 다른 견해들로 다시 인미공을 채워본다. 참여한 작가들과 기획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인미공을 말한다. 미술계 안팎에 거주하는 이들의 관점들로 그려진 인미공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교차한다. 여기에는 성과나 결과로서의 인미공이 있거나 혹은 없다. 유령처럼 공간을 배회하는 이미지들이 있다. 또는 인미공이 미술계 그리고 제도와 어떻게 호흡했거나 어긋났는지, 그 사이 비워진 언어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거나 해석할지를 묻는 목소리가 있다. 2025년의 인미공은 오늘날 미술의 역할과 그 작동 방식을 캐보는 장소가 되고, 종료의 의미를 물을 때 돌아오는 미완의 대답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그런 공간》은 한 공간의 끝을 문서들의 집합으로 회고하는 대신 인미공을 포함한 모두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다. 인미공이 '그런 공간'이었다는 정의를 내리는 대신 왜 '그런 공간'이었으며 그 내용과 입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되짚는 것, 이는 결국 마지막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 인미공 수석 큐레이터였던 백지숙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인미공에서도 물론 전시를 하지만, 전시보다는 '전시 이전'과 '전시 이후'를 중요하게 본다. /…/ 일주일이나 한달간 달랑 전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전시의 앞뒤를 연결해주고, 연장해주는 것이 인미공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아르코가 만난 예술: 안녕 인미공?」,『웹진 아르코 12호』, 2006년 3월

That (This) Space

We now stand before images and texts, each originating from different points in time at Insa Art Space (IAS)—a space that is closing, a space that has chosen to bow out to be the past, and a space whose future is unthinkable. How can we possibly organize and explain the languages and voices left behind? This is not a sentimental monologue lamenting over an ending. Instead, it is a contemplation of where the story of IAS's twenty-five years should begin and which moments should be revisited, though a vast amount of records are available—transcripts, emails, documents, and catalogs produced by IAS. The exhibition *That (This) Space* engages with IAS through abstract questions and tasks—*what* and *where*.

A linear enumeration of materials can hardly do justice to IAS's stories or defining characteristics. IAS may be summarized by the word "support", which was the apparent purpose behind the birth of the space; however, that alone does not explain why IAS has become *that* or *this space* for so many people. Transcending its function as a physical venue for viewing and presenting exhibitions, IAS has served as a platform for exchange and collaboration for some and a site where research, discussion, critique, and criticism were engaged on equal footing. As such, each person describes IAS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ir experience—often referring to it as *that (or this) space*. On the other hand, with its identity as an alternative, non-profit space run by a public institution as a fundamental base, IAS constantly agonized over taking up new responsibilities while negotiating its past, present, and future. However, this process was not (or could not be) without persistent hurdles. Thus, sharply divergent perspectives have been on the twenty-five years of IAS and the space itself. The exhibition *That (This) Space* acknowledges the many facets of IAS evoked by its name and explores how these aspects are interconnected. Furthermore, the exhibition examines how the history of IAS and the concerns surrounding its closure can be conveyed to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by overlapping IAS's twenty-five-year timeline with that of the Korean art world.

The 1999 Korean Currency Crisis led to decreased suppor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arts. As part of the art policy to address this issue and revive the environment for creative practice, the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now Arts Council Korea) recognized the need to provide spatial support for visual artists to present their works. As a result, IAS opened its doors on the third floor of the Insa Art Center building and began presenting exhibitions selected through open calls. While providing long-term support and organizing its exhibitions and programs—setting it apart from other alternative spaces—IAS was relocated to the third and fourth floors of the Hakgoje building (currently home to Galleryis) in Gwanhun-dong. Beginning in 2005, IAS launched various projects and continued to present exhibitions from open submissions. In collaboration with the Pidgin Collective (Lim Minouk and Frederic Michon) and Mikyung Lee, allowing artists'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to intervene, IAS established the IAS Archive, which played a dynamic role in later projects and exhibitions at the venue. Additionally, programs to support emerging artists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exchanges were created. Finally, in 2006, the Special Exhibition Hall of the Buddhist Museum in Wonseo-dong was renovated for IAS—granting it a standalone venue. In this unique four-story building, including the basement, IAS aimed to serve as "a space that bridges the before and after the exhibition," moving beyond its role of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resenting works and exhibition curations.* Moreover, as policy-related interests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globalization grew, and such duties were assigned to IAS, research began on locality with both Western and so-called "Third World" nations, including Vietnam and the Middle East, extending its efforts into publication, exhibition, and other programs. Thus, until 2008, IAS underwent a period of moving beyond its initial mission of supporting artists and producing discourse while

balancing various artistic practices, such as exhibitions, archiving, seminars, workshops, and publications. This is how IAS gradually developed its responsibilities, constantly wrestling with its intertwined identities and systems as an art space, public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In 2009, all the key components that determined IAS were integrated into ARKO Art Center, *reaffirming* IAS as a space that advocates for artists and curators. Still, IAS remained a hub for various creative individuals. Though the project names and application process changed—from the ARKO Young Art Frontier (AYAF) in 2009 to the ARKO Creative Academy (2016), for example—IAS has always been interlinked with projects aimed at supporting emerging artists, establishing itself as a space that introduces new artists. While operating its twentieth-anniversary archive project titled *IAS 2000–2020*, IAS also administered *IAS Studio* (2020–2022), *Monthly IAS* (2021–2022), and *Art Talk* (2021–2023), an art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Despite its accumulating list of exhibitions and programs, questions about "what kind of space" IAS was raised more frequently. Everything around IAS in the art world rapidly changed, and the pursuit of new ideas grew urgently. Still, IAS clung to terms like "support," "young," and "emerging," wavering into a space that was neither new nor old. Uncertainty surrounded whether the space would continue, and the gap between external expectations and internal concerns widened. Since the elements making up IAS were always rooted in the past, pushing the boundaries of an art *space*, as it had before, revealed many areas in need of improvement. This did not necessarily indicate a lack of budget or human resources. It was also about reflecting on which identities of IAS could remain relevant while reproducing and referencing past experiments and practices; furthermore, it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ose around and within had maintained their faith in IAS. Continuously having to renew and reconsider its direction and responsibilities, and after going through ongoing and incomplete discussions, IAS will soon become a point of reference from the 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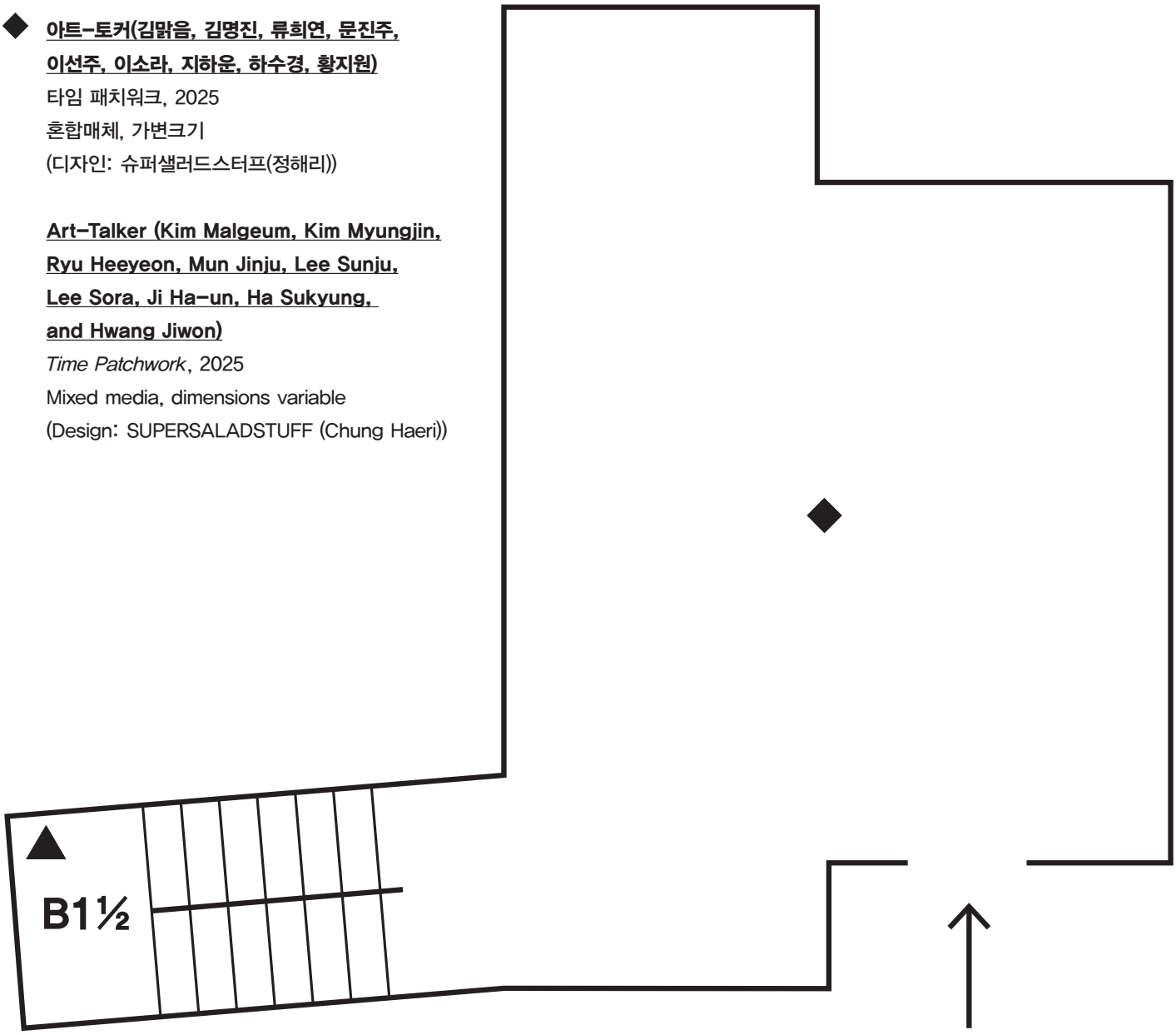
Let us revisit the question posed at the beginning of this text and attempt to complete it: what about and where should IAS be examined or explored? *That (This) Space* introduces perspectives not previously considered for re-reading IAS. Artists and cura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IAS programs recall their memories about the space. Thus, this IAS, which is composed of the outlooks of those inside and outside the art world, embrac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is context, IAS may or may not be represented by its accomplishments or as an outcome; instead, the space is made up of images that linger like ghosts. There are voices questioning how aligned or misaligned IAS has been with the art world or institutions and how the missing languages in between should be reconstructed or interpreted. In 2025, IAS has become a place where the responsibilities of today's art and its mode of operation are discussed while serving as an unresolved answer to the meaning of its closure. Instead of reflecting on the discontinuation of a space by compiling documents, *That (This) Space* investigates the unfinished tasks for IAS as well as every one of us. Rather than defining what kind of IAS was or has been, asking how it became *that* or *this space* we know and tracing the circumstances and positions that shaped it—can only be done as its end is on the horizon.

* Baek Ji-Sook, a former Chief Curator at IAS, once said, "IAS organizes exhibitions, but the emphasis lies on what comes *before and after* the exhibition. (…) IAS's role is not limited to helping present an exhibition that lasts a week or a month; its critical work will be to connect the processes involved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an exhibition and to provide extended support."
  – "ARKO Meets Art: Hello IAS!" *Webzine ARKO*, vol. 12 (March 2006).

1F

◆ **아트-토커(김맑음, 김명진, 류희연, 문진주, 이선주, 이소라, 지하운, 하수경, 황지원)**
타임 패치워크, 2025
혼합매체, 가변크기
(디자인: 슈퍼샐러드스터프(정해리))

Art-Talker (Kim Malgeum, Kim Myungjin, Ryu Heeyeon, Mun Jinju, Lee Sunju, Lee Sora, Ji Ha-un, Ha Sukyung, and Hwang Jiwon)
Time Patchwork, 2025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Design: SUPERSALADSTUFF (Chung Haeri))



▲ **노재운**
3 Open Up, 2001, 4분 11초
세 개의 대역, 2005, 5분 45초
얼음 여왕, 2006, 4분 36초
캐롤 앤을 찾아서, 2008, 5분 15초*
총알을 물어라!, 2008**

*〈3 Open Up〉, 〈세 개의 대역〉, 〈얼음 여왕〉, 〈캐롤 앤을 찾아서〉는 지하 층계참과 2층 전시장에서 상영됩니다. 2층에서는 작품당 약 8분의 시간차를 두고 재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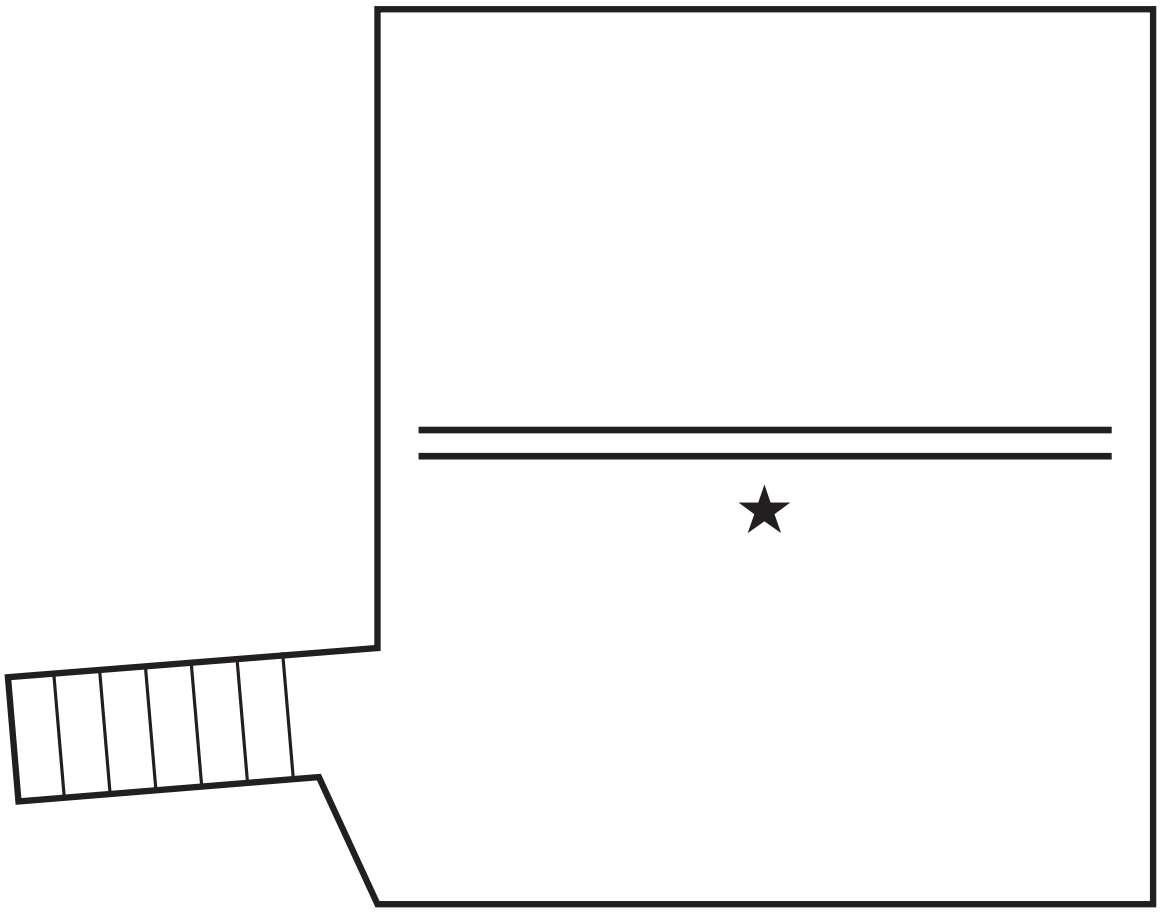
**〈총알을 물어라!〉는 인미공 인스타그램 계정 @insaartspace에서 언젠가 갑자기 만날 수 있습니다.

Rho Jae Oon
3 Open Up, 2001, 4 min 11 sec
3 Stand In, 2005, 5 min 45 sec
Casta Diva, 2006, 4 min 36 sec
Looking for Carole Anne, 2008, 5 min 15 sec*
Bite the Bullets!, 2008**

**3 Open Up*, *3 Stand in*, *Casta Diva*, and *Looking for Carole Anne* are shown in two locations: the staircase landing leading to the basement and the second-floor gallery. On the second floor, they play with an eight-minute break between them.

** Audiences may encounter *Bite the Bullets!* on Insa Art Space's Instagram page @insaartspace at any time and without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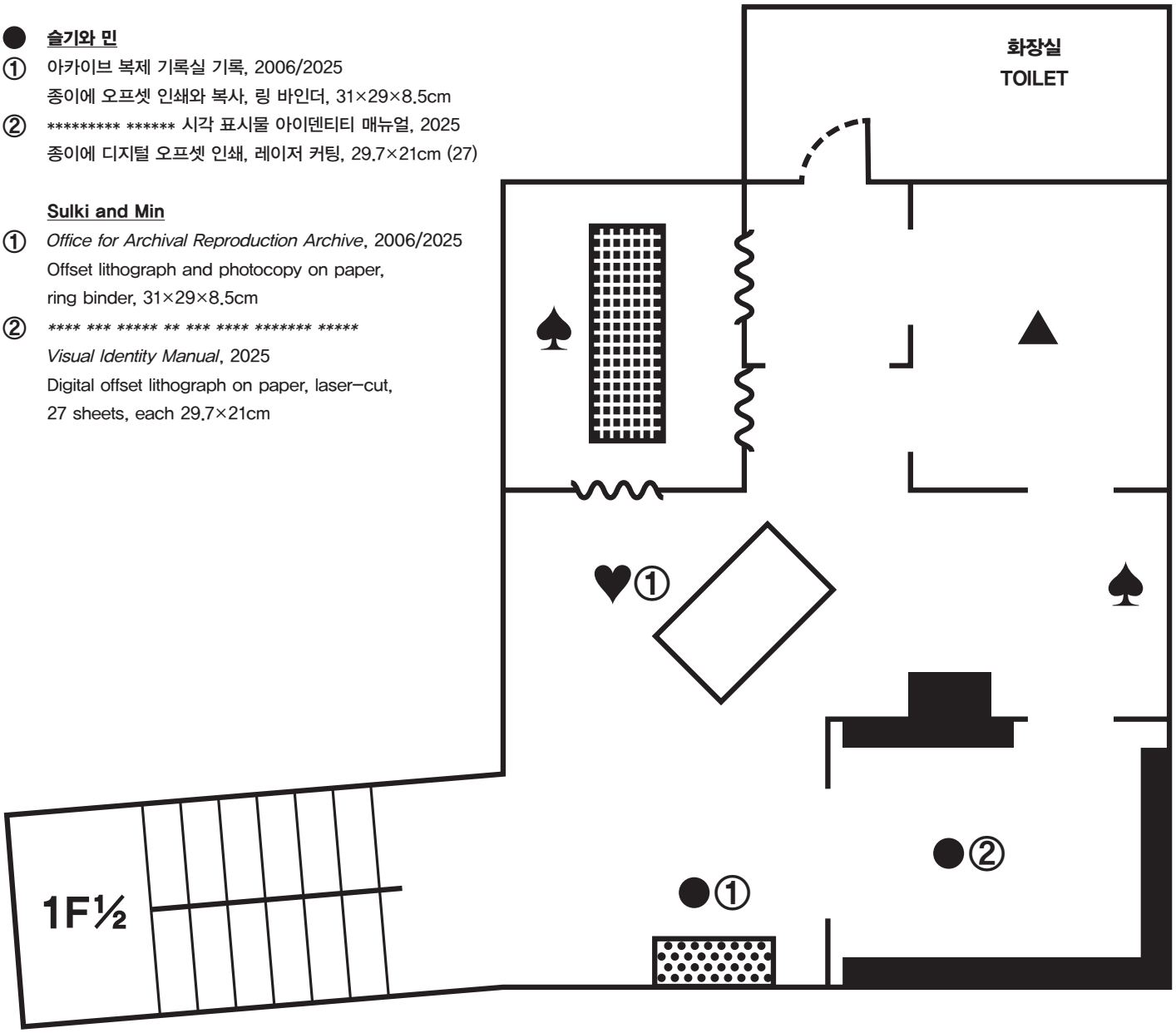
B1



★ **김익현**
바깥에서, 2025
사진, 문장, 소리, 싱글 채널 FHD 비디오,
리어 프로젝션

Gim Ikhyun
Vision, 2025
Photos, text, sound, single-channel FHD video, rear projection

2F



● **슬기와 민**

① 아카이브 복제 기록실 기록, 2006/2025
종이에 오프셋 인쇄와 복사, 링 바인더, 31×29×8.5cm

② ********* ****** 시각 표시물 아이덴티티 매뉴얼, 2025
종이에 디지털 오프셋 인쇄, 레이저 커팅, 29.7×21cm (27)

Sulki and Min

① *Office for Archival Reproduction Archive*, 2006/2025
Offset lithograph and photocopy on paper,
ring binder, 31×29×8.5cm

② **** *** ***** ** *** **** ******* *****
Visual Identity Manual, 2025
Digital offset lithograph on paper, laser-cut,
27 sheets, each 29.7×21cm

♥ **엄지은**

① 낡은 것들의 신, 2025
싱글 채널 비디오, 6분
(촬영: 박성현, 이진영)

② 타임 로프, 2025
포스터, 로프

+ 계단에서의 안녕,*2025
퍼포먼스, 30분
(창작 및 출연: 엄지은, 정경빈 / 기록 촬영: 최윤석)
*퍼포먼스는 전시 기간 중 총 3회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미공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해 주세요.

Uhm Jieun

① *The God of Old Things*, 2025
Single-channel video, 6 min
(Camera: Park Seonghyun, Lee Jinyoung)

② *Time Rope*, 2025
Weaved posters, rope

+ *Departure on the Stairs**, 2025
Performance, 30 min
(Script/Performer: Uhm Jieun, Jeong Kyeongbin /
Camera: Choi Yoonsuk)
*The performance will take place three times during the exhibition.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IAS's website and social media chann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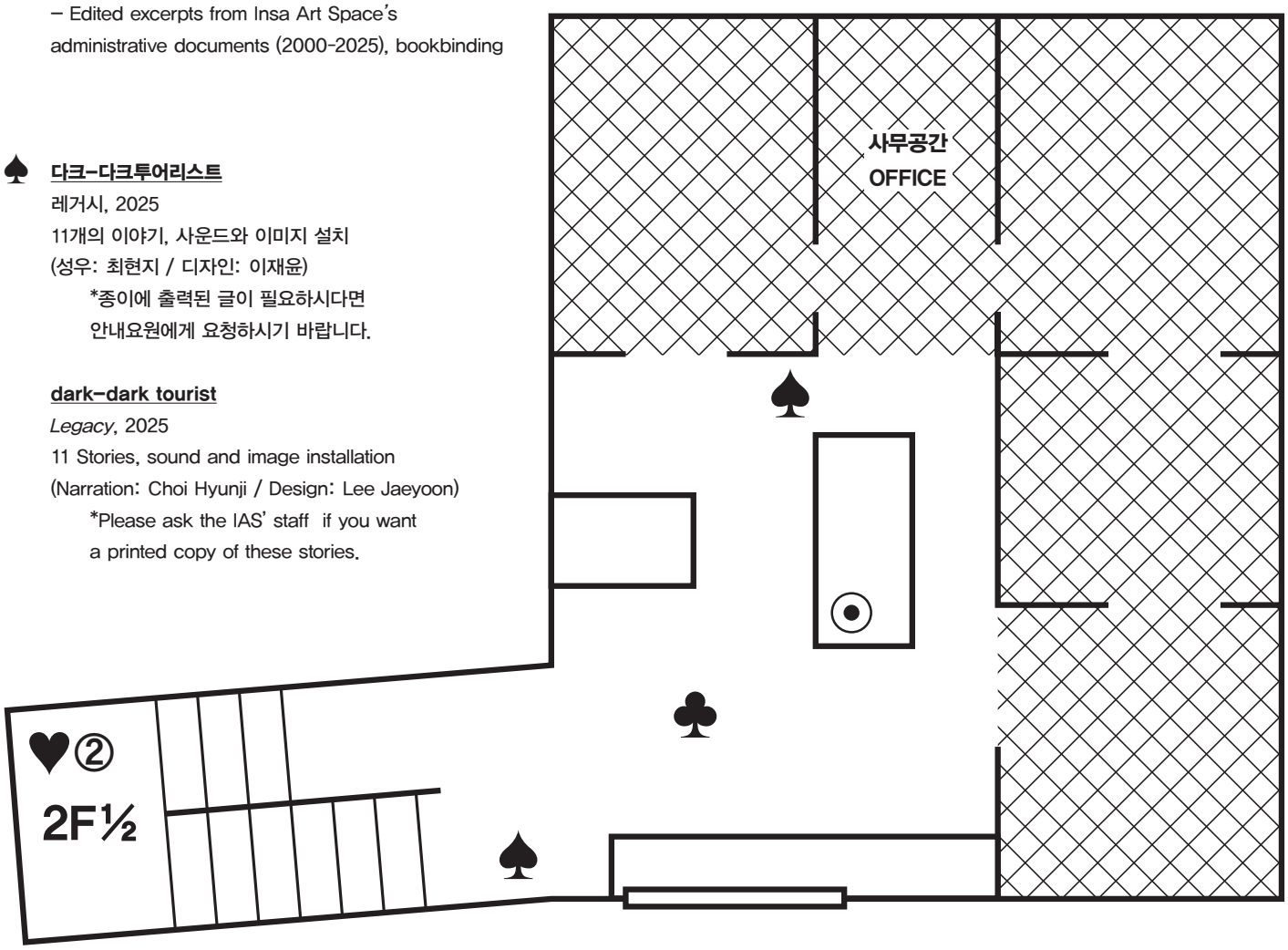
3F

⦿ 풍족한 양질의 /…/ 미술기관들! /…/ 과거에 비해 요즘은 /…/ 미술제도에 /…/ 오늘의 현실 아닐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번에 인미공이 /…/ 그런 계기나 토대를 /…/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2025 – 인사미술공간 행정문서(2000–2025) 발췌 및 편집, 제책

in abundant, high–quality /…/ art institutions! /…/ Compared to the past, nowadays /…/ In the art system /…/ Isn't that today's reality? /…/ Nevertheless /…/ This time, IAS /…/ Such a moment or foundation /…/ Could it be just the beginning?, 2025
– Edited excerpts from Insa Art Space's administrative documents (2000–2025), bookbinding

♠ **다크–다크투어리스트**
레거시, 2025
11개의 이야기, 사운드와 이미지 설치
(성우: 최현지 / 디자인: 이재윤)
*종이에 출력된 글이 필요하시다면 안내요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dark–dark tourist
Legacy, 2025
11 Stories, sound and image installation
(Narration: Choi Hyunji / Design: Lee Jaeyoon)
*Please ask the IAS' staff if you want a printed copy of these stories.



♣ **박보마**
프린트 숍: 단어, 개념, 이름 그리고 초상들, 2025
극, 각본, 종이 위에 레이저 프린트*, 인쇄기, 오브제**, 기성향수, 배우들***
*숍에서 자료 복사 및 관람을 위해 활용되는 모든 A4 규격의 종이
**인사미술공간 3층에 남아 있는 물건, 쓰레기 혹은 그 외의 무언가로 만든 오브제
***관객과 인사미술공간 3층 근무 직원

Pak Boma
Print Shop: Words, Concepts, Names and Portraits, 2025
Play, script, laser print on paper*, printer, objects**, mass–market fragrances, actors***
*All A4–sized paper used for copying and viewing materials in the Print Shop.
**leftover items, trash and objects made from other materials on the 3rd floor of IAS.
***referring to the visitors, audience and staff of this office.

◆ 아트-토커(김맑음, 김명진, 류희연, 문진주, 이선주, 이소라, 지하운, 하수경, 황지원)

아트-토커는 2021-2022년 인미공에서 진행된 〈아트토크-큐레이터 과정〉에 참여했던 큐레이터 9명의 팀명이다. 〈아트토크〉는 과거 인미공에서 진행되었던 작가 성장 워크숍, 그리고 AYAF와 아르코미술관의 작가·큐레이터 워크숍과 연장선에 있었다. 이후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되다 인미공으로 장소를 옮겨 2021-2023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작가, 에듀케이터, 큐레이터 세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중 기획 경험이 거의 없는 신진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한 〈큐레이터 과정〉은 2021-2022년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작가, 기획자, 비평가, 디자이너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관심사와 고민을 공유했다. 신진 기획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확장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였다.

〈타임 패치워크〉는 이렇게 인미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9명의 큐레이터들이 제작한 인미공의 타임라인이다. 이들은 인미공을 인사/미술/공간 세 파트로 분석하여 각자가 견지한 인미공의 지난 부분들을 드러내고, 인미공이 제도 및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엮여 있는지를 파악해 본다. 〈타임 패치워크〉는 과거를 기리기 위해 작성된 연표가 아닌, 인미공의 파편을 작금의 미술계에 연결할 때 발생하는 동시대 기획자들의 질문이자 의문이다. 〈타임 패치워크〉는 전시가 끝날 때까지 수정되거나 덧붙여지는 끝없는 기록으로 작동한다.

▲ 노재운

2004년 인미공의 개인전 《스킨 오브 사우스 코리아》와 온라인 스킨, 데이터를 활용하는 작업으로 주목받았던 노재운은 2004년 〈사년 2000-2004〉, 2005년 《evr(e-flux video rental) Seoul branch》, 2008년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 등 인미공의 주요 프로젝트들에 다수 참여했다. 2007년 슬기와 민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기 전, 2005년 작가가 직접 인미공의 홈페이지도 제작한 바 있다. 작가는 영화에의 관심을 기반으로 필름 카메라로 촬영되었던 1950~70년대 영화의 장면들과,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무한히 생산되는 인터넷의 이미지들을 엮는다. 특히 작가가 '멀티플렉스 극장' 이라고 일컬었던 '비말라키넷'(2000~현재 운영 중단)은 웹이 작동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작업을 볼 수 있는 반응형 인터페이스였다. 2021년 어도비 플래시 지원이 종료되면서 비말라키넷은 잠정 중단되었다. 비말라키넷을 포함해 크롭된 이미지, 픽셀이 깨질 때까지 확대되는 장면, 이미지와 관계없는 내레이션을 충돌시키며 예측하지 못한 제3의 서사를 파생 및 분절시키는 건 작가의 초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다. 〈3 Open Up〉, 〈치명적 아름다움〉 등 초기 작품들은 분단의 도상학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작가는 그들이 불투명한 껍질처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이미지들임을 강조했다. 그 자체로 분절되고 유영할 수 있는 이미지를 희망했던 작가는 20여 년 전 작품들의 스크린을 인미공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가의 작업을 읽는 지난 방식들에 균열을 내 본다. 각 작품들은 인미공의 SNS와 물리적 공간을 일시적으로 오가며 인미공 곳곳을 비추거나 목소리를 울린다. 그리고 스스로 쪼개지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거부한다. 사라지기 직전의 공간이자 인터페이스에서 재생되는 작품들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 충돌과 간극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2000년대 초반의 작품들을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변화한 작품의 위상이나 그 한계를 드러내는 일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감상과 서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지, 혹은 단순한 형식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 작품을 접속시키고 다시 읽으려는 시도는 인미공을 거쳐 간 과거의 작업들이 곧 사라질 공간의 미래를 가로지르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접점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 김익현

과거 인미공 정문은 거울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3층 사무실 입구에만 거울이 남아 있다. 작가는 거울에 반영된 인미공의 밖을 보면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물의 구조와, 인미공에 남은 사진을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겹쳐본다.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과 사실들을 증명하는 그 사진들은 미래로 향하는 길목에 놓여 있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경로로써 촬영되었을 것이다. 작가가 건네받은 사진 폴더 안에는 지금은 인미공에 없는 인미공의 가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인미공의 공간이, 그리고 지난 시간이 있다. 작가는 사진 뒷면과 앞면, 지금과 그때, 저것과 이것, 거기와 여기, 끝과 시작이 한데 뒤섞여 맞물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미공을 경유하여 사진의 안과 밖을 말한다. 사진 속 인미공과 지금의 인미공에 차이가 있다면 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미술을 포함한 그 밖의 언어까지 포괄하려 했던 인미공의 비전을 상기하면서 작가는 인미공을 구성했던 것들과 더불어 그 기억을 보존하는 장치들, 즉 여전히 인미공의 안팎을 이루는 것들을 사진으로 다시 끌어들인다. 이는 지난 흔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미공을 밖에서만 볼 수 있을 이들에게 전하는 인미공의 복잡한 풍경이자 사진만이 가능한 기억을 공유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 슬기와 민

슬기와 민은 2007년 인미공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했다. 이들은 2006년 원서동 이전기념 프로젝트 《선택의 조건》에 참여하면서 당시 인미공 2층의 아카이브를 활용한 작업을 선보였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인미공의 아이덴티티를 제작 후 그 사용 매뉴얼을 작성해 인미공에 전달한다. 그 디자인 과정에는 공간의 운영자와 사용자들이 상상한 한 공간에 대한 기대가 동반되었을 것이다. 슬기와 민이 초반 심볼을 기획하며 적은 기본 방향에는 "인미공 활동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심볼의 형태는 가급적 단순해야 /…/ 다음으로 이 심볼은 인미공의 활동을 어떤 측면에서든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미공의 주요활동이 크게 4가지(전시, 워크숍, 출판, 아카이빙)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 4개의 요소들이 하나의 단위로 종합되는 심볼들을 구상했다" 고 적혀 있다. 그러나 공간의 명확한 방향과 비전을 반영했던 그 아이덴티티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즉 '실체 없는 표상' 이 될 때 이 이미지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여 년이 지나고 다시 이 매뉴얼을 마주한 슬기와 민은 매뉴얼에 적힌 사용자들의 이름을 지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멍을 색으로 채운다. 구멍을 통해 누구든 사용자가 될 수 있는 (혹은 누구도 사용자가 될 수 없는) 매뉴얼과, 지워진 이름을 대신한 색색의 사각형은 병치 된다. 공간의 앞날을 그리며 탄생한 과거의 매뉴얼은 지난 유물이 되기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구멍이 되기를 선택한다. 아울러 《선택의 조건》에서 제작되었던 아카이브 북이 〈아카이브 복제 기록실 기록〉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를 통해 당시 인미공 2층 아카이브에 개입했던 디자이너의 실험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엄지은

〈낡은 것들의 신〉은 인미공의 낡은 수도관을 내시경으로 탐사한 비디오에서 출발한다. 이 영상은 빠른 속도로 밀려난 존재들이 과거의 시간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여정을 그린다. 이와 함께 전시 기간 동안 세 번 진행되는 퍼포먼스 〈계단에서의 안녕〉은 인미공의 종료 그리고 엄지은 작가와 정경빈 작가가 함께 했던 콜렉티브의 끝을 포개어 놓는다. 퍼포먼스는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참고하여, 삼형제의 벽돌집에 늑대를 초대하고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관객들은 미술을 둘러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소리 내어 읽고, 인미공 그리고 두 작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들에 담담한 안녕을 고하며 현재를 위한 의지를 다진다. 각 작업들은 과거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와 화해하는 방식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기를 선택하며 이를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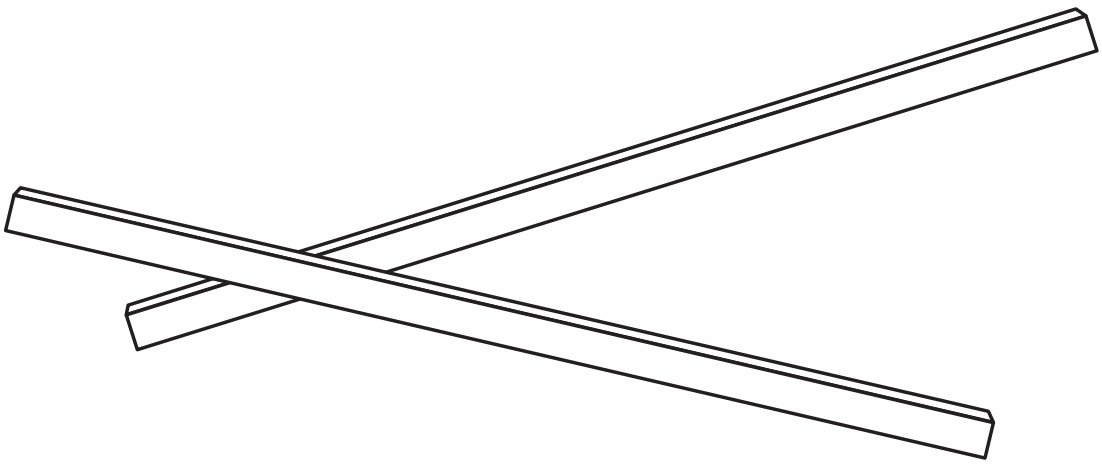
♠ 다크-다크투어리스트

'잊힌(잊힐) 장소' 를 다니는 다크-다크투어리스트는 인사미술공간의 공간적 주변부, 정서적 주변부의 '잊힌' 또는 '잊힐' 이야기를 수집하고, 미술계 외부의 시점으로 인미공의 궤적을 살핀다. 작가는 인미공이 존재하던 25년간 미술계 내외에서 사라진 것들을 추적한다. 작가가 직접 조사하여 제작한 이 목록에는 인사동, 인미공의 주요 출판물인 저널 『볼』을 배포하던 서점들, Y2K와 ADSL 등 물리적인 장소와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들도 포함된다. 또한 인미공 3층에 설치된 최정화 작가의 샹들리에에 사용된 헤드램프의 차종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인미공을 이루던 것들에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인미공과 그 주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론하게 한다. 이야기는 모두 음성*으로 제공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반복되지 않을 서사를 눈이 아닌 귀로 감각 하게 한다. 하지만 단순한 추억이나 회상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소멸과 부재의 흐름을 자각하는 순간이 된다. 이를 통해 지금 이곳의 변화가 오늘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환기한다.

*종이에 출력된 글이 필요하시다면 안내요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보마

인미공 3층은 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인 동시에 건물에서 유일하게 빛이 한껏 들어오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상 자주 공개되지 않았던 이 3층에서 작가는 관객과 직원들을 등장인물로 하는 일종의 극을 선보인다. 작가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미공과 관련된 전시, 워크숍, 미디어, 보고서 등의 여러 자료에서 총 360여 개의 이름과 400여 개의 단어들을 수집했다. 이 단어들을 AI에게 전달하여 큰 개념의 단어 20개와 그 하위 단어 30개를 추출해 각본을 만든다. 이 각본 속에는 실존인물과 가상의 인물들이 고루 등장하고, 그 이름의 순서나 인물의 등장은 AI를 통해 무작위로 나열하였다. 이제 무대가 된 인미공 3층은 25년 동안 수많은 자료들이 출력되고, 버려지고, 혹은 잊히고 잘렸던 '프린트숍' 이 된다. 관객 및 직원들, 즉 이 극의 등장인물들은 흐릿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이곳을 거쳐 간 이들의 모습과 목소리 그리고 체취를 상상한다.



◆ Art-Talker (Kim Malgeum, Kim Myungjin, Ryu Heeyeon, Mun Jinju, Lee Sunju, Lee Sora, Ji Ha-un, Ha Sukyung, and Hwang Jiwon)

Art-Talker is the name of a group of nine curators who participated in the Art Talk-Curator Program at IAS from 2021 to 2022. Art Talk was an extension of past IAS programs, such as the Artist Development Workshop held at IAS and the Artist-Curator Workshop organized by AYAF and ARKO Art Center. After the program moved from ARKO Art Center to IAS, it was structured into three sections: Artists, Educators, and Curators. The Curators section, designed for emerging curators with minimal experience, ran from 2021 to 2022. Participants had the opportunity to engage with artists, curators, critics, and designers, sharing their interests and concerns. The program's primary goal was to broaden participants' experience and perspective at a time when opportunities for emerging curators were limited.

Time Patchwork is a timeline of IAS created by the nine curators, each with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with IAS. The timeline examines IAS in three parts-Insa(dong), Art, and Space-revealing each curator's insights into the venue's history and exploring the interrelations between IAS, the system, and society. *Time Patchwork* is not a chronological record commemorating the past but rather a set of questions and critical examinations posed by contemporary curators as they intersect fragments of IAS's history with the current art world. The piece will continue to evolve, with new information added throughout the exhibition, serving as ongoing documentation.

▲ Rho Jae Oon

Rho Jae Oon gained attention with his IAS solo exhibition titled *Skin of South Korea* in 2004, along with his work utilizing online skin and data. Rho participated in many projects at IAS, including *Four Years, 2000-2004* (2004), *evr (e-flux video rental) Seoul branch* (2005), and *Dongducheon: A Walk to Remember, A Walk to Envision* (2008). In 2005, he also designed the IAS website, which remained until it was redone by Sulki and Min in 2007. Based on his interest in cinema, Rho weaves scenes from movies shot on film between the 1950s and 1970s with web images, which are endlessly produced even without light. His VIMALAKI.NET (from 2000, currently not in operation), which the artist referred to as a "multiplex theater," is an interactive interface that allows viewers to experience the work as long as they are connected to the web. The system support for Adobe Flash shut down in 2021, and VIMALAKI.NET has been unavailable since. The artist's early works are characterized by cropped images that continue to enlarge until become pixelated, as well as a collision of images and unrelated narrations, producing and disjointing an unexpected third narrative-along with VIMALAKI.NET. His early works, such as *3 Open Up* and *Fatal Beauty*, are often read as images of division; however, Rho stresses that his pictures are like opaque skins-variable and fluid. Rho, who wants his images to break down and flow simultaneously, utilizes IAS as a screen for his works made twenty years ago, attempting to fracture the past reading of his work. Each piece temporarily inhabits IAS's social media and physical spaces, shedding light on different corners of the venue and reverberating different voices. The images then break down, resisting being contained as whole entities. Rho's works, played in the physical venue and social media space approaching their closures, move beyond retrospection, creating collisions and gaps. Reintroducing the artist's works from the early 2000s in a new format may destabilize the authority of the newly transformed works and reveal their limitations. Whether this endeavor will evoke new appreciation and stories or remain a simple stylistic experiment is unclear. However, applying the works to the current circumstances for new interpretation also represents an effort to allow past works, which once lived in IAS, to reference the future of this soon-to-be-gone venue while creating unexpected junctions.

★ Gim Ikhyun

IAS's door used to be made of mirrors, but now the only mirror is the entrance to the third floor. Gim Ikhyun reflects on IAS's past structure, where visitors had to see the outside reflection as they entered the space, and the outside gaze directed toward the photos remaining at IAS. These photographs, which confirm the events at the venue as facts, suggest a path to the future and an aspiration to reach it. The folder handed to Gim contains images of furniture that is no longer at IAS, spaces that are no longer part of IAS, and moments from the past. Recognizing that these elements blend and interlock-the front and back of the photos, now and then, this and that, here and there,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Gim discusses the ins and outs of the photos through navigation within IAS.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ast IAS inside the photographs and the current IAS of today, how can photography convey that? Recalling the objectives of embracing the arts and languages outside of art, he brings back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and the apparatuses that preserve related memories-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that comprise IAS-into photographic images. This effort is not meant to place the remnants at the forefront. However, it can be a way to share the intricate ecosystem of IAS, which will only be accessible from the outside once it disappears into the past-a method of passing down memories made possible by photography.

● Sulki and Min

Sulki and Min was responsible for IAS's visual identity in 2007. For the project titled *Frame Builders*, which was to celebrate IAS's relocation to Wonseo-dong in 2006, the duo presented a work that utilized the archive on the IAS's second floor.

This experience inspired them to design the IAS visual identity, which was accompanied by a user manual. The design process must have considered the prospects of the staff members and users of the venue. The designers' original intention for the symbol states: "Considering the diversified endeavors by IAS, the symbol should be simple in structure /…/, and this symbol should represent any engagement of the venue. We were keen on the fact that IAS's main pursuits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four: exhibitions, workshops, publications, and archiving. Therefore, four elements come together as one unit to form the symbol." However, if this visual identity, which reflects the venue's clear direction and aspirations, becomes no longer relevant—in other words, if it turns into an "unsubstantial symbol," what happens then? Sulki and Min, after twenty years, revisit the manual. They erase the users' names and fill the space with colors. The holes, which either allow (or do not allow) anyone to be users, and the colorful squares replacing the names are juxtaposed. The user manual from the past, which once represented aspirations for the venue, refuses to remain as an artifact but actively chooses to remain blank—a response to an uncertain future. The archive book produced for *Frame Builders* also returns under the new title, *Office for Archival Reproduction Archive*, and will be on view. Audiences will have the chance to see the designers' experiments, which took part in the archive on the second floor of IAS.

♥ Uhm Jieun

The God of Old Things begins with a video that explores IAS's old water pipes through an endoscope. This video portrays a journey undertaken by those quickly dismissed—looking into the past to recognize their own positions and begin the process of renewal. *Departure on the Stairs*, a performance piece that will be presented three times during the exhibition, overlaps with both the closing of IAS and the final collaborative endeavor of Uhm Jieun and Jeong Kyeongbin. Referring to the fable *The Three Little Pigs*, the performance opens with a scene in which the two artists host the wolf at the brick house and engage in conversation. Audiences read aloud the artists' stories about art, gently saying farewell to the emotional residues tied to IA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llaborators. Through this, they find reassurance in navigating the present. Each work acknowledges the past and seeks to reconcile it with the present—ultimately as a way of preparing for an uncertain future and supporting one another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 dark-dark tourist

dark-dark tourist travels to "places that have been (or will be) forgotten." For this exhibition, he compiles forgotten (or soon-to-be-forgotten) stories from the marginal spaces around IAS, both physically and sentimentally, following the traces of IAS from an outsider's perspective looking into the art world. The artist explores things that have disappeared inside and outside the art world over the past twenty-five years—the duration of IAS's existence. Personally researched and produced, the artist's list includes physical spaces, such as the bookstores that helped distribute *Journal Bol*, IAS's and Insa-dong's primary publication, as well as social issues of the time, like Y2K and ADSL. Along with the list, the story investigating the car model of the headlamp used in Choi Jeong Hwa's chandelier piece on the third floor of IAS also leads to an inference about the changes that occurred within IAS and how they influenced the venue and its surroundings. These stories are presented in audio*, foregrounding the aural sense over the visual, appropriately referring to the stories that are no longer visible or repeatable. However, the artist's work does not remain as mere memories or recollections, as it provides a moment to realize how things cease to exist and become absent over time.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how the changes happening to this place will influence us today.

*Please ask the IAS' staff if you want a printed copy of these stories.

♣ Pak Boma

The third floor of IAS serves as office space for the staff and occasionally as a venue for conducting programs. It is the only area illuminated by natural light. In this space, which is rarely open to the public, Pak Boma presents a play in which audience members and IAS staff are featured as characters. Pak compiled about 360 names and 400 words from various IAS-related materials, including exhibitions, workshops, media, and reports. She provided the list to AI to produce super categories of twenty words and subcategories of thirty words and then used these words to prepare the script. The script features both imaginary and real-life characters, with AI randomly choosing the order of each character's appearance. Serving as a stage, IAS is transformed into a "print shop," where countless materials were printed, discarded, forgotten, or cut apart over the past twenty-five years. Audiences and IAS staffs—the characters in the play—view the obscured archive materials, reminiscing about those who have been in this space, their voices, and their pres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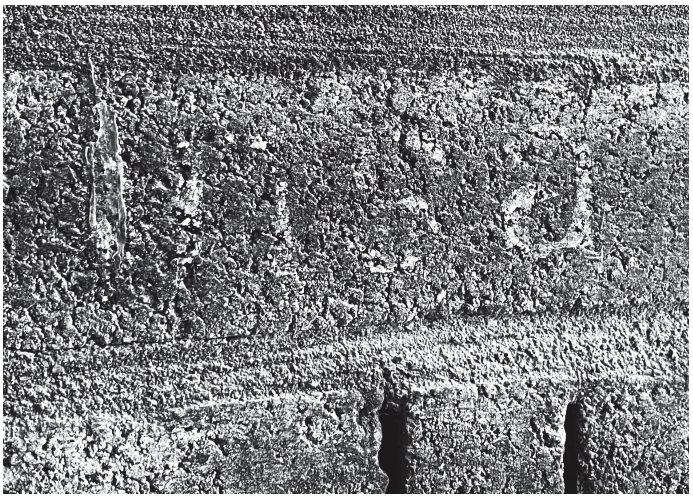





CAM3











인미공 종료 전시
《그런 공간》
2025.4.29.–6.1.

IAS Closing Exhibition
That (This) Space
2025.4.29.–6.1.

인사미술공간 Insa Art Space

참여작가 및 기획자

김익현, 노재운, 다크–다크투어리스트, 박보마, 슬기와 민, 아트–토커(김맑음, 김명진, 류희연, 문진주, 이선주, 이소라, 지하운, 하수경, 황지원), 엄지은

Artists and Curators

Gim Ikhyun, Rho Jae Oon, dark–dark tourist, Pak Boma, Sulki and Min, Art–Talker (Kim Malgeum, Kim Myungjin, Ryu Heeyeon, Mun Jinju, Lee Sunju, Lee Sora, Ji Ha–un, Ha Sukyung, and Hwang Jiwon), Uhm Jieun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월 휴무
무료관람

Opening Hours

TUE–SUN 11:00 AM – 7:00 PM
Closed on Mondays
Admission Free

인미공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89
02 760 4722
ias.info@arko.or.kr
www.arko.or.kr/insa

인스타그램 → @insaartspace
페이스북 → @InsaArtSpace
엑스 → @insaartspace
유튜브 → @insaartspace

INSA ART SPACE
89, Changdeokgung–gil, Jongno–gu, Seoul
02 760 4722
ias.info@arko.or.kr
www.arko.or.kr/insa

Instagram → @insaartspace
Facebook → @InsaArtSpace
X → @insaartspace
YouTube → @insaartspace